수영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광주수영대회 성공, 레거시서 찾다

〈4〉부다페스트 수영대회

도나우 강 하이다이빙 경기장 신의 한수
준비기간 짧았지만 정부 전폭적인 지원
3500여명 자원봉사자 무형적 유산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제17회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뒤 헝가리는 유럽의 변방에서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헝가리는 또 한 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수영대회 효과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수영을 즐기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도 곁들여지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효과 톡톡=지난 2017년 세계인은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는 도나우 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하이다이빙 경기를 TV 등을 통해 지켜봤다. 수영대회의 백미인 하이다이빙은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인 고풍스러운 외관의 국회의사당 앞 도나우 강변에서 열렸다.

중세 건물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도나우 강변에 설치된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신의 한 수였다. 단순히 금·은·동메달의 주인을 찾는 경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경기장으로 활용하면서 도시를 알리는 기회로 만들었다. 효과는 대단했다. 대회 개최 이후 헝가리 전체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고 부다페스트는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유명 관광지가 됐다. 특히 최근 국내 TV 여행 프로그램 등에서 부다페스트를 집중 홍보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부다페스트 시민도 수영대회 개최국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2017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7년 7월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경영과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하이다이빙 등 총 6개 종목이 열렸다. 총 182개국이 참가했으며 경기기간에 선수단을 포함해 3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장은 총 5개 시설로 하이다이빙, 아티스틱, 오픈워터 등 3개 경기장은 임시시설로 치렀다.

애초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015년 2월18일 멕시코 정부가 유가하락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영향의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2021년 대회 유치 계획을 잡고 있던 부다페스트가 선점하게 됐다.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부다페스트 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대부분이 부다페스트를 상징하는 명소에 마련되면서 미디어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역사적 장소서 열려 특별함 더해=부다페스트가 수영대회 이후 관광 산업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둔 광주로서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티스틱(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웅광장을 배경으로 열렸다.

부구경기는 수구 유럽챔피언십 경기가 열린 마가렛섬, 오픈 워터는 중유럽 최대호수인 발라톤 호수에서 치러졌다. 그야말로 모든 경기장이 헝가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다.

다이빙 경기가 열린 주경기장 두나 아레나(Duna arena)는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흐르는 도나우(다뉴브)강변에 자리 잡고 있다. 두나 아레나 관계자는 "수영 대회 때에는 VIP와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를 별도로 마련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올렸다"며 "당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관람석보다 추가로 확대해 관람석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다페스트 수영대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 유산은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다. 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총 3500여명으로 대부분 자국민이 참여했지만, 30% 가량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제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회 레거시와 관련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헝가리 자체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수영종목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일반인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면서 "수영대회의 성공으로 다른 종목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헝가리는 오는 2023년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했으며, 2025년~202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임시수조가 설치됐던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을 찾은 관광객의 모습.

기자 노트

갈등보다는 상생을…

최 재 호
경제부장·부국장

광주가 배구단 유치를 놓고 떠들썩하다. 한국전력의 빅스톰 배구단 광주유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 체육인들의 서운함이 반발로 이어지고 있지만 유치 실패를 한전 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는 무리라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한국전력 빅스톰 배구단이 광주를 배제하고 수원시와 연고지 재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지역내 여론이 곱지 않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는 광주체육인들이 합동 집회까지 가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경기도 의왕시까지 방문해 이전에 반대하는 선수단을 만나 설득하는 등 배구단 유치에 노력을 했는데, 한전이 정상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와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수원시와 재계약을 체결한 뒤 공식통보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린 것은 광주·전남 시·도민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문자메시지로 재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방식은 분명 상식의 궤를 벗어났다. 지역민의 비난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한전 배구단 유치 실패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과연 프로배구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지다. 지난 1997년 나산그룹이 창단한 광주 연고 최초 동계 프로팀인 '광주 나산 플로망스' 농구단과 지난 1998년 광주를 연고로 출범한 여자프로농구단 '신세계 쿨캣'의 실패가 그렇다.

이처럼 광주는 동계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높지 않다. 팀만 생기면 '겨울 스포츠 불모지'의 오명을 벗어날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전용구장, 선수단 의견, 훈련 파트너, 시민의 공감대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명맥만 유지하다 결국은 사라졌다.

한전 배구단 연고지 이전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전을 배척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한전 배구단 이전 문제는 한전과 기존 연고지인 수원시, 선수단 의견, 광주시 등의 입장과 이해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배구단 광주 유치 문제는 작은 부분일 수 있다. 한전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이후 '에너지밸리'를 구축해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관련 기업 360개사를 유치해 당초 목표인 350개사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유치된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더 많은 에너지관련 기업들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끌어 모아야 한다. 이 중심에 한전이 있고 이를 통해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만 광주·전남이 발전할 수 있다.

작은 것에 연연하기보다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생산적인 설득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한전이 하루빨리 지역에 안착해서 지역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인내와 성원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갈등보다 3년 후 한전이 배구단 유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준비하면 된다. 배구단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민과 한전이 함께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lion@kwangju.co.kr

광주시의회 "한국당은 민주주의 억압한 과거사 참회·속죄하라"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사진)는 24일 자유한국당의 민주주의를 억압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 된 참회와 속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4.19기념일에 '총칼의 역사와 정치폭력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요구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불의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선 국민들의 뜨거운 역사적 외침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구어낸 것이다"면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숭고한 민주주의와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한 정권을 뿌리로 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부르고 '북한군 600명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만원을 국회에 초청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망언까지 자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태는 역사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방증이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만행을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